

다.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남산골 한옥마을, 북촌한옥마을, 운현궁, 문화비축기지 등이 있다.

**문화행사** 종묘대제(5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9월) 등의 전통문화 행사가 있으며, 한강몽땅 여름축제(8월), 서울세계꽃축제(9월), 서울거리예술축제(10월), 서울빛초롱축제(11월) 등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축제가 있다.

2017년 10월 5~8일 열린 '서울거리예술축제2017'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에서 온 47개 팀이 145회에 걸쳐 거리예술 공연을 펼쳤다. 서울광장·세종대로와 서울로 7017에서 해외공연작품 16개, 국내 공연작품 31개, 시민 참여형 공연, 1천여 명이 참여하는 폐막 시민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서울빛초롱축제에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조형 작품이 청계천에 전시됐다. 이외에도 서울문화의 밤, 서울김장문화제,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등의 축제가 있다.

자치구별 주요 축제로는 여의도 봄꽃축제(영등포, 4월), 한성백제문화제(송파, 9월), 종로 한복축제(종로, 10월), 강동선사문화축제(강동, 10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마포, 10월), 신촌맥주축제(서대문, 10월), 이태원 지구촌축제(용산, 10월) 등이 있다.

## 의회활동

### 원 구성

〈의 장〉 양준욱

〈부의장〉 조규영, 김진수

〈의석분포〉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26명, 국민의당 8명, 바른정당 1명이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13명, 행정자치위원회 10명, 기획경제위원회 11명, 환경수자원위원회 11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명, 보건복지위원회 11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2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3명, 교통위원회 13명, 교육위원회 13명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의안처리** 조례안 396건, 예산 및 결산안 12건, 동의·승인안 115건, 건의안 16건, 결의안 30건, 의견청취 22건, 청원 15건, 기타 43건 등 총 6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총 3천86건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건의문, 결의문**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2017년 4월 28일) 등 총 16건의 건의안과 30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타 의정활동** 2017년 한 해 정례회 2회(제274회, 제277회), 임시회 4회(제272~273회, 제275~276회) 등 총 6회 110일간(정례 2회 26일, 임시 2회 42일)의 회기를 운영했고, 3회 8일에 걸친 일본일당 형식의 시정 질문에서는 총 39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시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 부산광역시

市花 : 동백꽃      市鳥 : 갈매기

市木 : 동백나무      캐릭터 : 부비(BUM)

시청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시장 : 서병수(徐秉洙)



## 개관

**연혁** 부산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때는 해운대 좌동·중동·청사포에서 후기 구석기 유적이, 영도 동삼동에서 조개무지 등 신석기 유적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약 2만 년 전부터 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역의 신석기·청동기 문화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철기시대에는 철을 중심으로 하는 수공업이 발달했다.

삼한시대 동래지역에는 거칠산군·장산군 등의 부족국가 있었다. 이후 신라가 이 지역을 병합하면서 거칠산군을 두고 지금의 당강동 일대에 대증현을 설치했다.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개칭했는데, 이는 중국식 지명을 따른 것으로 '동래'라는 명칭의 유래가 됐다. 이후 대증현을 동평현으로 고쳐 동래군의 영현으로, 갑화랑곡현을 기장현으로 고쳐 동래군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 성종 14년(995년) 전국을 2경(京) 4도호부(都護府) 10도(道)로 나뉘었을 때 동래군은 영동도(嶺東道)에 속했다. 현종 9년(1018년)에는 동래현으로 격하돼 기장현과 함께 울주(蔚州)의 속현, 동평현은 양주(梁州)의 속현이 됐다.

조선시대 초기에 부산진이 설치됐고, 태종 7년(1407년) 부산포를 개항해 항거 왜인들에게 왜관 내에서의 무역을 허락했다. 이후 동래도호부 승격 등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고, 국방정책 강화로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됐다.

1876년 2월 부산항이 근대 국제 무역항으로 개항했고, 1895년에는 동래관찰부로 승격됐다. 1900년 초부터 바다 매축과 시가지 조성, 항만 축조가 이뤄졌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됐다.

1914년 4월 부제(府制) 실시에 따라 동래부와 부산부로 재편됐다. 1925년 4월 도청이 부산으로 옮겨오면서 도청 소재지가 됐다. 1936년에 1차, 1942년에 2차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적이 확장됐다.

1949년 8월 府에서 市로 개칭됐다. 한국전쟁 때는 임시수도로서 모든 국가기능을 담당했으며, 1957년 1월 구제(區制, 6개 구)가 실시됐다. 1963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됐다.

1975년 10월 남구, 1978년 2월 북구, 1980년 4월 해운대구, 1983년 12월 사하구, 1988년 1월 금정구가 신설됐다. 1989년 1월 김해군 가락면·녹산면과 창원군 천가면 등이 편입돼 강서구가 신설됐다.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개칭됐고, 경남 양산군 5개 읍면이 기장군에, 진해시 웅동2동

### 부산광역시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sup>2</sup> )	가구(세대)	인구(명)
합 계	769.84	1,467,555	3,470,653
중 구	2.83	23,284	44,218
서 구	13.95	51,953	110,039
동 구	9.73	43,413	88,868
영 도 구	14.15	55,713	123,521
부 산 진 구	29.69	166,491	371,703
동 래 구	16.63	108,609	270,727
남 구	26.81	113,898	273,854
북 구	39.36	120,249	302,924
해 운 대 구	51.47	165,002	412,039
사 하 구	41.75	137,679	333,301
금 정 구	65.27	104,827	244,469
강 서 구	181.49	47,850	117,382
연 제 구	12.10	85,892	206,742
수 영 구	10.20	79,788	179,996
사 상 구	36.09	97,169	229,219
기 장 군	218.32	65,738	161,651

등 일부가 강서구 녹산동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749.17km<sup>2</sup>로 확장됐다. 3월 1일에는 기존의 동래구를 분구해 연제구를, 남구를 분구해 수영구를, 북구를 분구해 사상구를 신설해 16개 구(군)이 됐다.

2017년 12월 말 기준 행정구역은 15개 구, 1개 군, 205개 읍·면·동이 있다.

**면적·행정구역** 동쪽은 동해, 서쪽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와 김해시, 남쪽은 남해, 북쪽은 울산광역시 온양면·서생면,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와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769.84km<sup>2</sup>로 전 국토의 0.8%를 차지한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993.54km<sup>2</sup>로 그중 주거지역이 143.99km<sup>2</sup>, 상업지역이 25.22km<sup>2</sup>, 공업지역이 64.51km<sup>2</sup>, 녹지지역이 546.23km<sup>2</sup>,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52.71km<sup>2</sup>, 미지정이 160.88km<sup>2</sup>다.

## 재정

2018년도 예산 규모는 16조147억원으로 시 10조7천927억원, 자치군·구 5조2천220억원으로 나뉜다. 시 본예산 중 일반회계는 8조3천736억원(78%), 특별회계는 2조4천190억원(22%)이다.

시 예산 중 분야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3조9천249억원, 세외수입 1조1천540억원, 지방교부세 7천626억원, 보조금 3조2천543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조6천968억원이다.

분야별 세출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질서·안전 1조6천171억원, 교육재정지원 6천667억원, 문화·관광 3천511억원, 환경보호 6천103억원, 사회복지·보건 4조799억원, 농림해양수산 1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10,792,663	8,373,620	2,419,043
지방세	3,924,867	3,924,867	-
보통세	3,381,605	3,381,605	-
취득세	1,333,915	1,333,915	-
등록면허세	5,512	5,512	-
주인세	23,717	23,717	-
자동차세	519,288	519,288	-
레저세	104,227	104,227	-
담배소비세	200,886	200,886	-
지방소비세	543,604	543,604	-
지방소득세	650,456	650,456	-
목적세	513,369	513,369	-
지역자원시설세	123,389	123,389	-
지방교육세	389,980	389,980	-
2017년도 수입	29,893	29,893	-
세외수입	1,154,094	349,996	804,098
경상적 세외수입	804,299	100,758	703,541
임시적 세외수입	349,795	249,238	100,557
지방교부세	762,600	762,600	-
지방교부세	762,600	762,600	-
보조금	3,254,275	2,562,835	691,441
국고보조금 등	3,254,275	2,562,835	691,441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96,827	773,322	923,505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10,792,663	8,373,620	2,419,043
일반 공공행정	1,093,408	1,093,408	-
공공질서 및 안전	523,755	414,819	108,936
교육	666,721	666,721	-
문화 및 관광	351,131	315,707	35,424
환경보호	610,289	99,795	510,494
사회복지 및 보건	4,079,901	3,341,635	738,266
농림해양수산	160,720	160,720	-
산업·중소기업	442,255	416,311	25,944
수송 및 교통	1,493,355	1,018,945	474,411
국토 및 지역개발	463,384	364,816	98,568
과학기술	3,298	3,298	-
예비비	79,240	69,303	9,937
기타	825,206	408,141	417,065

천607억원, 산업·중소기업 4천423억원, 수송 및 교통 1조4천93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천634억원, 과학기술 33억원, 예비비 및 기타 9천44억원이다.

## 중점추진사업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 일자리정책조정회의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부산일자리저전다10', '지역고용실천전략'을 마련했다. '부산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으로 3천 236명의 취·창업자를 지원했고, 6월엔 상담에서 출국까지 해외 취업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K-Move 센터를 열었다.

민선 6기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은 2017년 12월 말 현재 17만8천 개로 목표인 20만 개 대비 89.3%를 달성했다. 5월에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3년 연속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2016년에 이어 최우수상을 받았다.

**청년 디딤돌 플랜** 취업, 주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청년들을 위해 5월 청년종합지원정책을 수립하고 9월 '청년 디딤돌 카드', '머물자리론',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조성사업**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일대에 5조4천386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첨단산업과 국제물류·주거·레저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 중인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2-1단계 사업 구간이기도 하다. 2017년 말 현재 42%의 공정률을 기록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한 3차 용역 착수** 대통령 지역발전 대선공약으로 채택됐고, 부산시·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착수하기로 결정한 '낙동강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을 위한 3차 용역' 사업과 관련해 11월 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형 복지시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부산시민 복지기준 마련,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다복동(洞)사업 강화로 정부의 일반복지정책으로는 부족하거나 소외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했다.

부산형 행복주택은 2017년 현재 1곳에 14호를 준공하고 2곳에서 1천251호 공사를 시작했다. 8곳 4천234호의 사업을 승인하고 1천197호 후보지 3곳을 검토했다.

부산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대상지 37곳과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4곳을 검토했다. 부산드림아파트 2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실버주택 1곳을 승인했다.

**부산형 출산정책 '아이 맘 부산 플랜' 마련** 1.10명 수준인 부산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 맘 부산 플랜'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진담(眞談), 시민인식 조사, 결혼·출산 설문조사, 정책토론회, 정책개발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을 거쳐 구체화했다.

출산지원금 확대 등 '아주라(for baby) 지원금' 6개 사업, 아가·맘 원스톱센터 운영 등 '맘에게 센터' 8개 사업,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등 '맘에게 정책' 4개 사업 등 총 18개 사업을 추진했다.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 선포**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2017년 1월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을 선포했다.

3월 클린에너지정책관 등 에너지정책 콘트롤타워를 신설하고 4월 민간 클린에너지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5월 시민대토론회를 거쳐 6월 서울에너지공사와 노원 에코센터 등 우수 사례를 견학했다. 7월에는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클린에너지추진단TF 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8월부터는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해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쟁력 있는 국내의 우수기업 유치** 2017년 105개 기업이 전입하고 11개 기업이 부산을 떠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역외 기업들이 지속해서 부산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이케아와 관내 매장 건립과 부산을 본사로 하는 한국법인 설립을 합의했다. 또한 미국 MS데이터센터, 현대글로벌서비스, 더존비즈온 등 IT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을 유치했다.

**김해 신공항** 기존 김해공항의 시설 용량 포화를 해소하고 인천공항 재난 발생 시 대체 가능한 영남권 관문 공항 기능을 수행할 김해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사업비도 당초 계획 대비 1조7천900억원이 증가한 5조9천6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소음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부산시 의견을 전달했다.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사업**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 해소를 위해 2014년 12월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로 국비 55억원을 확보해 2016년 3월 용역에 착수, 2017년 12월 완료했다.

**동해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 2017년 말 현재 전체 공정률 83%로 부산(부전~일광) 구간은 2016년 12월 우선 개통해 도시철도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회 2014년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협약 체결을 거쳐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안락~반여동 구간의 원동역 추가 신설 공사를 8월 시작했다.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 대학가에 문화·예술·산업·창업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경제발전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3월 동의대 대학가(가야동)에 디자인을 특화한 '디자인 스프링', 12월 부산대 대학가(장전동)에 인디문화와 창업을 특화한 '폼터+'와 경성대·부경대 대학가(대연동)에 공연·예술을 특화한 '고고씽 Job'을 조성했다.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기장군 인근 부지 약 363만㎡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해 테마파크, 운동·휴양시설, 테마상가 등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33개 대상시설 중 테마파크, 골프장, 힐튼부산호텔, 아쿠아리움, 프리미엄 아울렛 등 22개 시설의 투자유치를 완료했고 2017년 나머지 12개 시설에 대해 개별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부산항 신항 건설**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신항 건설사업으로 2025년까지 컨테이너부두(컨부두) 40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2선석 외에 2012년 서컨부두 3선석, 2015년 남컨부두 3선석을 착공했고 2017년 서컨부두 2선석을 추가 착공했다. 3단계 11선석은 물동량 예측 결과에 따라 건설시기를

판단해 추진할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부산항의 항만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북항 내 기존 부두를 해륙교통의 요충지 및 국제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으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지와 원도심 간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보행 데크 건설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경관호안수로 축조공사는 이보다 앞서 2017년 3월 착공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2008년 10월 정부의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국책사업으로 김해시 진영에서 한림, 대동을 거쳐 부산 기장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8.8km의 광역도로망이다. 12월 28일 부산시역 내 금정구 노포동 금정분기점에서 기장군 일광면 기장분기점 구간을 임시개통 했다.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총연장 5천620m, 폭 4차로로 총사업비 3천4억원을 투입해 부산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2013년 8월 공사를 착수, 2014년 3월 보상철차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2017년 말 현재 공정률 80%를 기록했다.

**천마산터널 건설** 거가대교에서 가덕대교~신호대교~을숙도대교~남항대교~부산항대교~광안대로로 이어지는 총 길이 52km의 해상도로 중 내륙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총사업비 3천65억원을 투입해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7월 터널 굴진을 완료했으며 12월 말 현재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으로 전체 76%의 공정률을 기록했다.

**부산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474억원, 연면적 1만6천292㎡, 자료실·보존서고·회의실·다목적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17년 12월 착공했다.

**부산혁신도시 건설** 부산을 영화·영상의 메카이자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동삼혁신지구(해양산업), 문현혁신지구(금융), 선템혁신지구(영화영상), 대연혁신지구(주거) 등 4개 혁신지구에 관련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2017년 현재 13개 기관, 3천122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 경제

**경제지표** 2017년 부산경제는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산이 부진하고 소비와 고용부문의 개선세가 다소 미흡했던 한 해였다. 상반기에는 선박 등 제조업 감소세가 지속됐고 소비부문의 대(對)중국 리스크, 고용 불안, 조선업 침체 등의 이유로 다소 부진했다.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와 더불어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됐고 물가도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철강제품, 선박 관련 수출이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2위 품목이었던 자동차 부품이 해외 현지생산 등의 이유로 51.0%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줄었지만 일본,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은 동남권 주력 제조업의 불황으로 제조업부문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고용률은 2016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63.3%를 기록했다. 특히 상용근로자 비중이 64.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폭염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6년 대비 0.6%포인트 오른 1.8%를 기록했다.

**제조업** 2016년 말 기준 부산지역 제조업체(종업원 10인 이상) 수는 4천189개다. 종업원 수는 14만2천813명, 연간 출하액은 44조190억원, 부가가치 창출은 15조6천591억원이다.

**금융** 2016년 12월 말 기준 금융기관 점포 수는 예금은행 589개(시중은행 237개, 지방은행 233개, 특수은행 41개, 농수협 중앙회 75개, 외국은행 3개)와 비은행기관 725개소 등 총 1천314개다. 금융기관의 여·수신 규모는 2017년 8월 말 현재 수신 잔액 149조6천억원, 여신 잔액 132조3천억원이다.

**농업** 농경지는 금정구와 북구, 해운대구 일부, 강서구와 기장군 전역에 펼쳐져 있으며 면적은 5천934ha다. 농가 호수는 8천159호, 농가 인구는 2만554명이다.

**축산업** 축산농가 수는 2017년 12월 말 기준 746가구로 소 2천113두(130가구), 돼지 8천854두(17가구), 닭·오리 17만3천212수(487가구)를 사육하고 있다.

**항만·수산업** 부산항의 2017년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수입 504만TEU, 수출 514만TEU, 환적 1천27만TEU 등 총 2천47만TEU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어항 시설은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13개소, 어촌 정주어항 10개소, 소규모 어항(비법정어항) 22개소 등 총 48개소다.

2016년도 기준 연구해 생산량은 36만t(전국의 16%)이며, 2017년 말 기준 수산물가공 등록업체 수는 125개소, 냉장보관 능력은 143만M/T다.

## 사회

**주택** 2016년 말 기준 주택 보급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8만9천663호, 아파트 75만122호, 다세대 15만7천476호, 연립 3만2천73호 등 총 137만5천534호로 주택 보급률은 102.3%이다.

**상수도** 생산능력은 하루 194만4천㎡고 2017년 말 현재 하루 평균 생산량은 108만9천㎡다. 1인 하루 급수량은 307ℓ, 상수도 보급률은 100%다.

**하수도** 2017년 말 기준 하수도 보급률 99.29%, 하수관거 보급률 86.8%다. 수영, 강변, 해운대, 남부, 중앙, 영도, 동부, 기장, 정관, 문오성 등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보건·위생** 2017년 말 기준 종합병원 29개소, 병·의원 2천618개소, 치과 병·의원 1천277개소, 한방 병·의원 1천121개소, 부속의원 9개소, 조산원 2개소 등 5천56개소에 의사 등 의료인 2만7천60명,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2만5천6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약품 판매업소는 3천881개소, 의료기기 취급 업소는 4천631개소다. 공중위생업 9개 업종 1만7천333개소, 식품위생업소 23개 업종 7만8천330개소가 있다.

**국제교류** 호찌민·세부주·상트페테르부르크·파나마시

티·울란바토르 시장을 초청하는 등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부산시·상하이시·나가사키현 3도시 교류회의'를 통해 청소년 바둑교류사업,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통해 글로벌인재육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자매도시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문화공연단을 파견해 '부산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블라디보스토크, 동북 3성과 한·중·러 북방경제도시협의회를 구성해 물류 관광에 관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오클랜드·시카고·사할린·LA·함부르크·수라바야의 한 인행을 지원하고 미얀마 양곤, 필리핀 세부주 한글학교에 학습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ODA 사업 발굴을 통한 부산형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해 전국 최초로 KOICA 부산사무소를 개소했다. 호찌민시와 도시철도 건설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부산해외봉사단 파견도 추진했다.

8월 동아시아-중남미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인 K2-를 운영했다. 수라바야시 공무원 도시개발분야 부산 인재개발원 위탁 연수, 개도국 공무원 초청 시정 연수도 시행했다.

## 교육 · 문화

**교육** 2017년 말 기준 유치원 417개소, 초등학교 305개교, 중학교 174개교, 고등학교(특수·기술학교포함) 165개교, 대학(전문대 포함)22개교, 평생교육시설학교 11개교 등 총 1천94개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총 56만2천여 명이다.

**종교** 종교시설은 불교 2천여 개소, 기독교 1천800여 개소, 천주교 106개소, 원불교 53개소, 천도교 9개소, 유교 2개소, 기타 135개소 등 총 3천800여 개소며, 성직자는 약 7천여 명이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금동보살입상 등 국보 6점,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보물 41점, 부산 동래 패총 등 사적 5점,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등 천연기념물 7점, 부산 영도 태종대 등 명승 2점, 동래야류 등 중요무형문화재 6점, 중요민속문화재 2점, 등록문화재 18점 등 총 87점이 있다. 시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70점, 무형문화재 24점, 기념물 52점, 민속문화재 18점, 문화재자료 96점 등 총 360점이 있다.

**문화시설** 시내 공연장은 83개소로 공공 공연장이 33개소, 민간 공연장이 50개소다. 전시시설은 미술관 7개소, 박물관 27개소, 문화원 15개소가 있고, 31개소의 영화상영관(스크린 218개)이 있다.

**문화행사** 1월 해맞이축제·북극곰축제, 4월 부산연극제·낙동강유채꽃축제·부산국제단편영화제·아트부산, 5월 부산 콘텐츠마켓·부산민속예술축제, 6월 부산국제무용제·부산푸드필름페스타, 7월 부산음악콩쿠르·부산미술대전, 8월 부산 바다축제·부산국제광고제·부산국제록페스티벌, 9월 마루국제음악제·부산국제관광전·부산국제합창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자갈치축제·불꽃축제, 11월 국제게임전시회·부산독립영화제, 12월 부산미술제·부산콘텐츠유니버시아드·부산 웹툰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가 있다.

**영화·영상 진흥** 12월 영화·영상 기획부터 촬영-후작업-배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상산업센터를 개관했다. 11월 세계 3대 게임쇼로 성장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7'을 개최했고 2020년까지 부산 개최가 확정됐다. 한류와 부산 문화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축제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2018년 10월 개최)과 세계 최대 매직 이벤트인 세계마술올림픽(2018년 7월 개최)을 유치했다.

## 의회활동

### 원 구성

〈의장〉 백종헌

〈부의장〉 김영욱, 강성태

〈의원〉 의원정수는 47명이며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44명, 국민의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8명, 경제문화위원회 8명, 복지환경위원회 8명, 해양교통위원회 7명, 도시안전위원회 8명, 교육위원회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13명으로 이뤄져 있다.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7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 지방분권특별위원회 7명, 서민경제특별위원회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 2017년도 시의회 정례회는 2회 54일간, 임시회는 6회 71일간 등 총 8회 125일간의 회기를 가졌다.

**의안처리** 2017년도에는 조례(안) 187건, 예산(안) 12건, 동의·승인(안) 63건, 의견청취(안) 16건, 건의·결의(안) 10건, 기타(안) 41건 등 총 329건을 처리했다.

**예산심의** 2017년도 중 예산심의회는 본예산 1회, 추경 3회에 걸쳐 총 4차례 있었고 2018년도 시 본예산 10조7천927억원, 교육비특별회계 3조9천205억원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53개 기관·단체를 감사해 그중 324건을 시정요구, 379건을 건의하는 등 총 703건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건의문·결의문**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1월 23일),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5월 11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7월 2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9월 6일),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9월 8일),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건의(12월 14일) 등 10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했다.

**기타 의정활동** 4회에 걸쳐 43명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해 90건의 검토·이행 약속을 받았다. '사람중심·생활정책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을 촉구하며', '재방 수준의 미세먼지! 부산시의 대응 현실은?', '태종대 모노레일 사업, 문 제점 최소화해야' 등 12회에 걸쳐 118건 실시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시민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초·중·고 의회교실 9회(517명), 여성의회교실 2회(153명), 시민의회교실 1회(34명), 장애인의회교실 1회(18명),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7개 팀 103명)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